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 학교·마을·지자체 '한마음'

'2025 전주교육정책포럼' 성료... 지역교육 발전 방향 모색
민·관·학 협력 지역 교육 생태계 모델 조성 필요성 강조

'2025 전주교육정책포럼'이 지난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포럼은 전주 지역교육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육계, 지자체,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과 지

역 인재 정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전주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지역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호 교육

사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신인철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특히 좌장을 맡은 이미영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학이 협력해 전주민의 특색을 살린 지역 교육 생태계 모델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 지역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을 매개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2025 전주교육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미영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IP 인재양성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북대 JIPEC, DY INNOVATE와 지식재산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송철규, 이하 JIPEC)은 최근 DY INNOVATE(주)(대표 이승창,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장)와 지식재산(IP) 기반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연 공·유·협력 체계 구축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IP 교육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전북대에 따르면 JIPEC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실용성 있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 기업인 DY INNOVATE 역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규 JIPEC 단장은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IP 교육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며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창 DY INNOVATE 대표이사는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상호보완적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DY INNOVATE(주)와 지식재산(IP) 기반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적 로컬 창업 아이디어로 시장 문 활짝

전주대 창업지원단, '아이디어 옥션 in 전주' 킥오프 캠프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김상진)은 지난 3일 전주 킥오프공간에서 '아이디어 옥션 in 전주' 킥오프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로컬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들 아이디어가 사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뒀다.

이번 킥오프 캠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강희 대표(구황유니버스), 정은정 대표(로컬웍스), 정현빈 대표(로컬러), 김영록 대표(러닝쿠루)의 로컬창업 아이디어 사례 특강, 그리고 '아이디어 마르세'를 통해 총 10개 팀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프로그램 참여 팀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멘토리와 함께 서로의 로컬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오는 9월 5일 서울시 성수동 헤이그라운



드에서 개최되는 '아이디어 옥션 Day'에서 참여팀들의 아이디어 피칭(idea pitching)과 전문가들의 피드백, 그리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평가된 가치를 반영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진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3일 전주 킥오프공간에서 열린 '아이디어 옥션 in 전주' 킥오프 캠프.

호원대 RISE 사업단 현판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최근, 4동 공학관 2층 RISE사업단 사무실(4동 218호)에서 RISE사업단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할 거점 대학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RISE 사업단 관계자, 단과대학 사업단장과 연구교

수들이 참석하였고, 군산시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현석 복지교육 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엔미디어 강동길 대표, 웨일타미디어 정성훈 대표, 더원스타일 윤종민 대표, 드링크엔터테인먼트 김갑진 본부장 등 RISE사업의 산학협력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지식산학협력의 가치를 높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본관 2층 강당에서 '2025. 국제교류수업 학교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국제교류수업 질적 성장 실천전략 모색

전북교육청, '2025 국제교류수업 학교 중간발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본관 2층 강당에서 '2025. 국제교류수업 학교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국제교류수업을 운영 중인 도내 86개교 담당 교사들이 참석해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교류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중간발표회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초·중·고 대표 교사 5명의 운영 사례 나눔 발표와 분임별 심층 토의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교사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학교와의 협업 경험 △산림청 등 기관 연계 수업 사례 △주제 프로젝트형 수업 △특성화 학교에서의 전공 기반 수업 등 다양한 경험과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및 극복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사전 설문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고민을 바탕으로 한 분임 토의는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과 실천 아이디어를 교사들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상반기 운영 현황과 사례를 '운영 사례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하고, 하반기 운영 내실화와 향후 국제교류수업 학교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국제교류수업은 공교육 안에서 세계를 만나는 수업으로, 교사들의 실천이 그 중심에 있다"며 "이번 중간발표회는 학교 현장의 경험과 통찰이 모여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협력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상반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됐다.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지도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상반기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상반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사서교사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에 접목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교급별로 진행됐다. 특히 그래픽 비주얼씹기(Visual Thinking) 의견나눔 시간을 통해 사서교

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학생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주얼씹기는 글과 그림을 함께 활용해 빠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밖에도 사서교사의 역할 및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실천 연구회(2팀)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선도학교(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4S' 수업나눔 연수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지난 5일 도내 유치원 교사 294명을 대상으로 '4S' 수업나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4S' 수업나눔 연수는 Show(나만의 수업 방법을 보여주자!), See(다른 교사의 수업을 공감하여 보자!), Share(수업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자!), Start(모두가 수업 혁신의 주인공으로 시작하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5월 '4S' 수업나눔을 위한 연수과정을 공모, 우수사례 6개 과정을 선정했다. 이후 컨설팅을 통해 강사들의 연수 구성과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 △학급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참여자들이 폭넓은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정 원장은 "이번 연수가 수업에 대한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경험하고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우수사례가 담긴 연수를 기반으로 유아교육 전문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JB-TEAM 로코노미 거점 조성 프로젝트 공청회

전주기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3일 부안군 치유농업 산업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식문화·농업 자원·예술 자원을 융합해 '부안형 치유·관광 복합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부안군의 자연, 식문화, 농업자산, 예술자원 등을 결합한 '치유 로코노미스' 실현을 주제로 다양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치유농장 네트워크 기반 콘텐츠 개발 △치유여행 코스 및 OTA(온라인 여행사)와의 MOU 체결을 통한 상품화 △스마트 치유농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힐링 허브 구축 전략이 발표됐다. 치유농업과 최연우 학과장은 "JB-TEAM 로코노미 프로젝트는 부안군 고유의 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을 지향하는 지역 혁신 모델"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힐링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치유농업 솔루션을 통해 고품격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복지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